

아버지의 사회화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Father's Socialization Beliefs as Related to Child Social Behaviors

김 은 지*

Kim, Eun Ji

박 성 연**

Park, Seong Yeon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father's proactive socialization beliefs as related to social behaviors of their children. The Subjects were 194 fathers and their 3- to 6-year-old children in Seoul. Instruments included 2 questionnaires : the Social Skills Questionnaire reported by fathers and Child Social Behaviors rated by teachers. Results showed that father's socialization beliefs varied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social skills, the reasons why parents believe children acquire or don't acquire particular social skills, and the most effective strategies fathers hold for socialization of childre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ther's proactive beliefs by sex of child, economic status, and fathers' educational level. Fathers who emphasized child's regulation of negative emotions had children showing low prosocial behaviors.

Key words : 사회화신념(socialization belief), 아버지 역할(fathering),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

※ 접수 2002년 2월 28일, 채택 2002년 4월 10일

*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전임연구원, E-mail : rosa0909@hotmail.com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인 존재로서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의 틀에 적응되어 가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Snow, 1998). 특히 유아기에 형성된 사회적 행동의 기초는 이후 아동이 더 넓은 환경에 접했을 때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행동 발달에 있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윤서영, 1999; 최한순, 1995; Lamb, 1981; Parke, 1981).

한편, 지금까지 대부분의 부모 역할에 관한 연구들은 외현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양육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함으로써 부모의 인지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연구가 부모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아(McGillicuddy-De Lisi, 1985) 국외에서는 1980년대부터 단순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연구하기보다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Miller, 1988). 그 결과, 부모가 아동 발달 전반에 대해 가지는 목표나 가치관 등 다양한 인지적 내용을 포함하는 부모의 신념은 자녀의 발달에서 양육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안지영, 2000).

신념은 단순한 태도나 가치와는 달리 개인에게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지식이나 사상을 뜻하며 어떤 행동에 대한 '태도' 및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귀인'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안지영, 2000, 재인용). 따라서 양육신념

은 자녀의 발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다양한 인지적 요소의 구성체로서, 부모의 행동을 지도하고 부모-자녀관계와 아동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근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신념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들은 부모가 지닌 과거의 경험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경혜, 1993).

특히, 정보-처리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양육신념은 자녀와의 경험을 통해 부모의 양육 전략을 더 적합한 것으로 수정시키는 인지(cognition)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부모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자로 간주되며,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화와 관련된 양육신념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이끌고, 상호작용의 질은 아동이 사회적 행동을 잘 학습하게 할 수도 있고 부적응적인 문제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ubin, LeMare, & Lollis, 1990). Mills와 Rubin(1990)은 이러한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사회화신념을 주도적(proactive) 신념과 반응적(reactive) 신념으로 구분하였다. 주도적 신념이란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을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며, 반응적 신념은 사회-부적응적인 문제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가지는 신념이다(Mills & Rubin, 1990). 이들은 이러한 두 가지 신념유형을 정의하기 위해 기존의 다른 신념들보다 구체적인 문제상황과 그에 따른 인과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아동의 문제상황에 따라 부모의 신념이 어

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논할 때 아동과 일차적인 관계에 있는 어머니 역할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은 이차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 이르러 취업여성의 자녀 양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허선자, 1992). 이에 따라 아버지-자녀와의 관계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에만 국한되어 있어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회화신념은 물론 일반적인 신념을 포함한 선행연구 또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상 국외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부모-자녀관계 연구에 있어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졌고, 여러 연구들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 성 역할 학습, 인지발달, 성취동기 및 직업선택 등 제반 영역에서 어머니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최한순, 1995). 즉, 아버지와 아동 사이의 관계 질이 또래간이나 다른 어른들과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 역할의 상실은 사회규칙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키며, 충동성, 공격성 등의 반사회적 행동 특성 과도 관련되므로써(Parke, 1981) 아버지는 자녀가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학습을 제공한다(Lamb, 1981)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아버지의 존재, 양육태도,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오화심, 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자율적 태도일 때,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조절능력)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김정신, 1999), 아버지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이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감 및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서영, 1999). 이 외에도 성인중심적-아동중심적 교육관(이원영, 1983)이나 성숙-환경, 전체-개인 강조의 신념(안지영, 2000)과 같이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신념을 중심으로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밝힌 신념연구가 소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양육행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아버지의 사회화 신념과 관련된 변인을 추론하고자 한다. Delucie(1987)에 의하면 부모는 아동양육실제에 있어서 아들보다 딸에게 더 수용적이고 덜 통제적이어서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를 수 있다.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의 차이를 본 양진희(1991)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남아일 경우 여아보다 어머니가 성인중심적 교육관의 경향을 더 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Lamb(1981)은 아버지들이 딸의 양육보다 아들의 양육에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Esterbrooks과 Goldberg(1984)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연구에서도 아동의 성에 따라 신념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고윤희, 2000)도 있어 아동의 성이 부모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는 불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성에 대한 비밀관적인 결과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겠으나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신념을 전체적인 경향으로만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양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신념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발달내용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지면서(Sigel, Stinson, & Flaughter, 1991),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양육신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동의 성 외에도 부모의 교육수준, 수입 등으로 지표화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관련변인으로 간주된다. Kohn(1969)에 의하면, 인간은 직업적 지위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지각할 뿐 아니라 사회적 성공과 관련된 특성이 자녀양육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계층에 따라 다른 양육방법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 사회계층에 따라 계층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 및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며(강란혜, 1990),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중심적 교육관을 갖고 있고(이원영, 1983),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환경보다는 성숙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나타낸다는(고을희, 2000) 선행연구들은 Kohn(1963, 1969)의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태도나 신념과는 달리 아버지의 자녀양육활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학력에 관계 없이 모든 부부가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이옥자, 1983; 차은영, 1987). 이와 같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는 아동중심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아동의 독립심과 성숙을 강조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화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는 연구된 바 없다.

한편, 아동 초기에 형성된 사회적 행동

패턴은 후기의 사회적 적응패턴과 관련되며(Kupersmidt, Coie, & Dodge, 1990; Ladd & Profilet, 1996; Parker & Asher, 1987) 많은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영숙(1992)은 가족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사회적 역량(대인적 행동에서의 적합성, 낯선 사람에 대한 인사성, 차례지키기, 일반규칙 지키기 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의 수용성을 보고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참여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있어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을 할 때 아동의 유능성·지도성이 높고(최경순, 1993), 아버지가 양육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적절한 제한과 합리적인 지도를 할 때 아동은 애정 표현이나 협력성, 사려성 등, 높은 생활능력을 나타냈다(노현미, 199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육행동의 원인이 되는 사회화신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핵가족화로 인해 현대사회에서는 어머니역할과 더불어 아버지역할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의 능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의 사회현실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행동에 관한 아버지의 사회화신념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가 아동 초기의 사회적 행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주도적(proactive) 신념(Mills & Rubin, 1990)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신념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성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버지의 사회화신념은 차이가 있는

가?

2.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대한 아버지의 사회화신념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6세 아동과 그 아버지 194명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임의로 만 3-6세 아동이 다니고 있는 서울 지역의 어린이집 두 곳을 선정하였고, 그 곳의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고, 그 아동의 아버지에게 사회화신념에 관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¹⁾. 배부된 총 질문지는 250부였으며, 이 가운데 199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76.9%) 아버지나 교사 중 어느 한가지 자료가 회수되지 않은 5부를 제외한 194부만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아동을 선정할 이유는 후기의 사회적 적응 양상이 아동 초기의 사회적 행동 양상에 의해서 이미 잠재적으로 경로화되며(Ladd & Profilet, 1996), 유아기에 형성된 사회적 행동의 기초는 아동의 후기 사회 적응력을 잘 예측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 아동은 남아가 99명(51%), 여아가 95명(49%)으로, 평균연령은 4.9세였다. 연구 대상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54.1%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이 23.2%, 고등학교 졸업이 13.9%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150만원-200만원이 18%로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200만원-250만원이 15.5%, 500만원 이상이 13.9%, 250-300만원이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아버지의 사회화신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신념 중에서도 사회화와 관련된 주도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Mills와 Rubin(1990)의 접근을 기초로 Cheah(2001)가 개발한 ‘사회적 기술 질문지(Social Skills Questionnaire : SSQ)’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SQ는 ‘다른 아동과 나누어 쓰기’, ‘부정적인 감정 조절하기’, ‘다른 아동을 도와주기’의 세 가지 사회적 행동이 설정되고, 각 사회적 행동에 대해 각각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묻고 있다²⁾. 즉, 사회적 행동에 대해 아버지가 그 행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녀가 각 사회적 행동을 잘하거나 잘못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각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지도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원래 SSQ 중에서 아버지의 중요도 지각점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되

1)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만 3-6세에 해당하는 자녀 1명만을 생각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2) SSQ의 하위내용 중 ‘사회적 행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내용도 있었으나 본 논문을 지면상 제외시켰다.

어 있으나 나머지 사회적 행동에 관한 내용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 개방형의 질문지는 본 연구를 위해 Cheah(2001)의 자료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폐쇄형 질문지로 구성하여 응답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된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첫째 ‘사회적 행동은 어떤 원인에 의해 잘하거나 잘 못하게 되었는가’는 각각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Cheah, 2001; Rubin, Mills, & Rose-Kransor, 1989). 내적인 요인은 아동의 기질 및 성향, 나이 및 성숙, 일시적인 내적 상태의 세 가지로 세분화하였고, 외적인 요인은 학습이나 강화, 부모의 양육환경,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외적인 상황의 네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둘째로 ‘아버지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지도 방법’은 Mills와 Rubin(1990)의 부호화 체계를 사용하였는데, 모델링, 제안하기, 지도하기, 토론하기와 교육하기의 다섯 가지로 구성하였다. 즉, ‘모델링’은 부모가 바라는 행동을 아동에게 직접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제안하기’는 부드럽게 아동의 행동을 설득하거나 제안하는 것, ‘지도하기’는 바라는 행동에 대한 지시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토론하기’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왜 그런 행동을 바라는지 설명하는 것이며 ‘교육하기’는 실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계속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링’에서 ‘교육하기’로 갈수록 부모는 아동의 능력이나 성숙보다는 환경이나 부모의 영향을 높게 생각하여 부모가 아동의 행동지도에 더욱 많이 개입하는 지도방법이다.

2)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Ladd와 Profilet(1996)의 CBS(the Child Behavior

Scale)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BS는 교사 평가로 여섯 개의 하위요인 중 아버지 양육 신념 척도에서 설정된 세 가지 사회적 행동-나누기, 부정적 감정조절하기, 도와주기-과 관계가 예상되는 네 가지 하위요인을 선택하였다. 즉, CBS 중에서 ‘공격성’ 7문항, ‘친사회성’ 7문항, ‘따돌림’ 7문항과 ‘불안-두려움’ 4문항의 총 25문항을 선택하여 번안하였고, 예비조사결과 한 문항을 제외하여 총 24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척도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1점(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3점(자주 그렇다)의 응답범위로 교사가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각 사회적 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인 또래 간 ‘공격성’은 또래간에 지속적인 공격성을 의미하며 후기의 부적응적인 면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 구체적인 문항들을 보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와 “친구들과 다툰다”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4$ 였다. 두 번째 요인인 ‘친사회성’은 감정이입과 이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구들과 협동적이다”, “친구에게 친절하다”등의 문항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신뢰도는 $\alpha=.88$ 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으로 ‘따돌림’은 또래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외되므로써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인은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친구들이 놀이에 끼여주지 않는다”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alpha=.89$ 로 나타났다. 네 번째 요인인 ‘불안-두려움’은 아동의 정서적 불안을 의미하며 “걱정스러워한다”,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

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1$ 였다.

3)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SES)의 지표로 가족의 월 평균 가정 소득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선정하였다. 먼저,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을 우리 나라 2000년도 가구당 월 평균 도시가계소득이 2,386,900원임을 참고하여(통계청, 2001) 상류(22.2%)·중류(54.1%)·하류(23.7%)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교 졸업(14.4%), 대학 졸업(8.2%), 대학교 졸업(54.1%)과 대학원 이상(23.2%)의 4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무작위로 선정한 5명의 아버지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결과, 아버지의 사회화신념 중, 세 번째 내용인 ‘자녀가 사회적 행동

을 잘 하는 원인’의 문항이 응답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어 문항을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또 교사용 설문지에서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친사회성 한 문항을 제외시키고 결과적으로 24 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10월 8일부터 26일까지 임의로 서울지역의 어린이집 두 곳을 선정하여, 만 3~6세 아동을 둔 아버지와 이 아동들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사회화신념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아동의 사회적 행동 척도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t 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χ^2 검증 및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통계적 유의도 $p=.05$ 수준 이하에서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양육신념의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즉, 아버지가 사회적 행동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회적 행동을 잘 하거나 잘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행동의 지도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로 구성된 아버지의 사회화신념의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나누기, 부정적 감정조절과 도와주기의 세 가지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가 55.7%, 41.2%, 64.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어 아버지들은 세 가지 사회적 행동에 대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히 나누기와 도와주기의 평균이 4.14, 4.03으로 나타난 데 비해, 부정적 감정조절의 평균은 3.30으로 나타나 아버지들은 사회적 행동 중에서 나누기와 도와주기를 부정적 감정조절보다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아버지 사회화신념의 전반적인 분포

단위 : 명(%)

- a)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사회적 행동을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b) 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 : 내적인 요인-기질이나 성향(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 나이나 성숙(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고 할 수 있을만큼 성숙하였기 때문), 일시적인 내적 상태(그 상황에서 기분이 좋았기 때문), 외적인 요인-학습이나 강화(일상생활에서 배웠거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강화를 받았기 때문), 양육환경(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적절한 모델링 때문), 경험(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행동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 외적인 상황(그 상황에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
- c) 사회적 행동을 잘 못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 : 내적인 요인-기질이나 성향(어릴 때부터 아이의 성향이 그랬기 때문에), 나이나 성숙(사회적 행동을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 일시적인 내적 상태(그 상황에서 기분이 나빴기 때문), 외적인 요인-학습이나 강화(일상생활에서 배우지 못했거나 사회적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 양육환경(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태도나 모델링의 부재 때문), 경험(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행동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 외적인 상황(그 상황에서 사회적 행동이 잘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

한편, 각 사회적 행동을 잘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귀인(attribution) 내용을 살펴보면, 나누기, 부정적인 감정조절과 도와주기 모두 ‘학습이나 강화(33.3%, 33.3%, 38.1%)’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일시적인 내적상태(23.5%, 21.2%, 19.5%)’에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 세 행동 모두 내적인 요인(34.9%, 34.4%, 33.6%)보다는 외적인 요인(65.1%, 65.6%, 66.4%)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즉, 아동이 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데 있어 아버지는 그 행동을 가르치고 강화해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하였다(<표 1>).

또한 각 사회적 행동을 잘 못하는 원인은 <표 1>에서 보듯이 나누기, 부정적인 감정조절과 도와주기 모두 ‘나이나 성숙(18.5%, 29.5%, 23%)’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나누기와 도와주기를 잘 못하는 이유는 ‘양육환경(18.6%, 20.1%)’,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못하는 이유는 ‘기질이나 성향(15.3%)’이 높게 나타났다.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나누기와 도와주기는 사회적 행동을 잘하는 원인과 일관되게 외적인 요인에 더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못하는 원인은 잘 하는 경우와는 달리, 내적인 요인에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사회적 행동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신념은 나누기와 도와주기의 경우 ‘토론하기(38.7%, 41.2%)’가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 감정조절의 경우 ‘제안하기(44.3%)’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 즉, 아버지가 아동에게 나누기나 도와주기를 지도할 때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설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부정적 감정조절을 지도할 때는 강요하기보다는 부드럽게 행동을 설득하거나 제안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2. 아동의 성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버지의 사회화신념

1)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대한 신념

연구문제 1인 아동의 성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버지가 지각한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t* 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성 및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행동 중 도와주기 행동의 중요도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3, 190)=2.698, p<.05$). 이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아버지들($M=4.21$)과 대학원 이상의 아버지들($M=3.80$)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학력이 낮은 아버지일수록 도와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표 2>).

<표 2> 교육수준에 따른 도와주기 행동의 중요도에 대한 아버지 사회화신념의 차이

(N = 194)

	도와주기 행동				
	N	M	SD	F	Duncan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	4.21	.63	2.698	A
대학 졸업	16	4.13	.34		AB
대학교 졸업	105	4.06	.62		AB
대학원 이상	45	3.80	.84		B

* $p<.05$

2) 사회적 행동을 잘하는 원인에 대한 신념

아동의 성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원인과 관계의 관계를 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행동 중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하는 원인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chi^2= 17.752, df=6, p<.01$).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하는 원인 중에서도 특히 내적인 요인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를 <표 3>에서 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정적 감정조절을 못하는 원인을 ‘일시적인 내적상태’에 두는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그 원인을 ‘기질이나 성향’ 또는 ‘나이나 성숙’에 더 많이 둬므로써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학력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하는 이유는 아직 미성숙하거나 기질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력이 낮은 아버지일수록 일시적인 내적 상태에 그 원인을 두었다. 한편 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원인에 대한 신념은 아동의 성과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교육수준과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하는 내적인 요인에 대한 아버지 양육신념과의 관계
단위 : 명(%)

	교육 수준 ^a				합 계
	1	2	3	4	
기질이나 성향	2 (1.7)	1 (0.9)	14 (12.1)	8 (6.9)	25 (21.6)
나이나 성숙	1 (0.9)	0 (0.0)	7 (6.0)	12 (10.3)	20 (17.2)
내적인 요인	15 (12.9)	9 (7.8)	36 (31.0)	11 (9.5)	71 (61.3)
일시적인 내적 상태	18 (15.5)	10 (8.6)	57 (49.1)	31 (26.7)	116 (100)

$\chi^2 = 17.752^{**}$, $df=6$, $**p < .01$

- a) 교육수준의 설명 : 1=고등학교 졸업 이하, 2=대학 졸업, 3=대학교 졸업, 4=대학원 이상
- b) 합계는 전체 합에서 외적인 요인(N=78)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N=116이다.

3) 사회적 행동을 잘 못하는 원인에 대한 신념

사회적 행동을 잘 못하는 원인에 대한 신념

이 아동의 성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F 검증한 결과, 아동의 성과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듯이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못하는 원인에 대한 아버지 신념은 내·외적인 요인 중에서 외적인 요인의 경우에만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chi^2 = 12.239$, $df=2$, $p < .01$). 즉,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못하는 원인으로 여아의 경우는 ‘학습이나 강화(48.4%)’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아의 경우는 ‘양육환경(25.8%)’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아버지들은 부정적 감정조절을 못하는 것은 아동의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적인 주변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특히 여아는 주변의 가르침이나 적절한 강화가 없어서 부정적 감정조절을 못하고, 남아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감정조절에 대한 모델링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도와주기 행동에 대한 신념은 가족의 월 평균 소득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 ($\chi^2 = 12.845$, $df=4$, $p < .05$), 중·하류의 아버지들은 ‘학습이나 강화(16.1%)’를 강조하는 반면, 상류의 아버지들은 ‘가정환경(23.2%)’을 강조하였다. 즉,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버지들은 도와주기를 잘 못하는 이유를 학습이나 적절한 강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반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버지들은 그 이유를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표 5>). 그러나 사회적 행동을 잘 못하는 원인에 대한 신념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아동의 성과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못하는 원인에 대한 아버지 양육신념과의 관계
단위: 명(%)

	남아	여아	합계
학습이나 강화	3 (9.7)	15(48.4)	18(58.1)
외적인 양육환경	8(25.8)	2 (6.4)	10(32.2)
외인 ^a 경험	2 (6.4)	1 (3.3)	3 (9.7)
합 계	13(41.9)	18(58.1)	31(100)

$\chi^2 = 12.239^{**}$, $df=2$, $**p<.01$
a) 외적인 요인 중 '외적인 상황'은 전체빈도가 낮아 (N=1) 제외시킨 후 분석하였다.

<표 5> 가족의 월 평균 소득과 도와주기를 잘 못하는 원인에 대한 아버지 양육신념과의 관계
단위: 명(%)

	하류	중류	상류	합계
학습이나 강화	9(16.1)	13(23.2)	6(10.7)	28(50.0)
외적인 양육환경	4 (7.2)	7(12.4)	13(23.2)	24(42.8)
외인 ^a 경험	3 (5.4)	1 (1.8)	0 (0.0)	4 (7.2)
합 계	16(28.7)	37(37.4)	19(33.9)	56(100)

$\chi^2 = 12.845^*$, $df=4$, $*p<.05$
a) 외적인 요인 중 '외적인 상황'의 빈도가 작아(N=1)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4) 사회적 행동의 지도방법에 대한 신념

<표 6>에서 보듯이, 아동의 성은 나누기에 대한 사회화 지도방법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사회적 기술을 지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남아의 경우는 '토론하기(22.7%)' 과 '모델링(13.4%)'의 방법을, 여아의 경우는 '토론하기(16%)'과 '제안하기(14.4%)'의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chi^2 = 10.120$, $df= 3$, $p<.05$). 특히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는 나누기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남아에게는 모델링을 강조하는데(13.4% vs 9.3%) 반해, 여아에게는 상

대적으로 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9.3% vs 3.1%).

<표 6> 아동의 성과 나누기 행동의 지도 방법^a에 대한 아버지의 사회화신념과의 관계
단위: 명(%)

	남아	여아	합계
모델링	26(13.4)	18(9.3)	44(22.7)
제안하기	23(11.9)	28(14.4)	51(26.3)
토론하기	44(22.7)	31(16.0)	75(38.7)
교육하기	6 (3.1)	18 (9.3)	24(12.4)
합 계	99(51.0)	95(49.0)	194(100)

$\chi^2 = 10.120^*$, $df=3$, $*p<.05$

3. 아버지의 사회화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구문제 2인 아버지의 사회화신념 중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와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중 친사회성 ($r=-.15$, $p<.05$)만이 부정적 감정 조절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즉, 아버지가 부정적 감정조절을 중요하게 지

<표 7>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대한 아버지의 사회화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N = 194)

아동의 사회적 행동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		
	나누기	부정적 감정조절	도와주기
공격성	-.01	-.02	.02
친사회성	.01	-.15*	.01
따돌림	-.02	.02	-.03
불안-두려움	-.01	.10	-.05

* $p<.05$

각할수록 아동의 친사회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감정조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동이 친구들을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을 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양육신념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분석으로써 아버지 신념의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는 세 가지 사회적 행동을 대부분 중요하게 지각하며 “부정적 감정조절”보다는 “나누기”와 “도와주기”를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중 미국과 중국의 만 3~6세 아동의 어머니들이 “나누기”, “도와주기”를 “부정적 감정조절”보다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Cheah(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한편 전자의 두 사회적 행동을 부모가 더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바람직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이 사회적 행동을 잘하는 원인을 보면, 세 가지 사회적 행동에서 모두 아동이 사회적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적절한 지도와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중국 어머니들이 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원인으로 주로 외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것과 일치하지만, 미국 어머니들이 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원인으로 주로 내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것(Cheah, 2001)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버지가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 잘 이루어진 이유가 아동의 능력이나 성숙보

다는 부모나 외적인 환경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전통적 가치관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결과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이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선행연구들(고을희, 2000; 안지영, 2000; McGillicuddy-De Lisi, 1985;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과 일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행동을 잘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회적 행동 모두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사회적 행동 내용에 따라서 그 원인에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아버지들은 사회적 행동을 잘 하는 이유는 부모나 환경적인 요인에 두며, 사회적 행동을 잘 못하는 이유는 아동 자신의 기질이나 미성숙의 탓으로 돌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사회화신념이 내용에 따라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상황에 따라 비일관적인 양상(최경애, 1992)을 보이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부모의 신념은 내면적이고 복합적인 인지체계로써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가 “나누기”와 “도와주기”를 “부정적 감정조절”보다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과 연결지어 보면, 부모들은 “나누기”와 “도와주기”를 더 중요하게 지각하여 지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만약 아동이

이런 사회적 행동을 못한다면 그 원인을 부모의 지도부족에 두지만, “부정적 감정조절”은 부모가 덜 중요하게 지각하므로 아동이 잘못된 원인을 부모가 아닌 아동, 특히 아동의 발달상 미숙함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생각하는 지도 방법 또한 사회적 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누기”와 “도와주기”를 지도할 때는 부모들이 아동의 능력을 높게 보고 실제상황에서 나누기와 돕기 행동을 지도하는 한편, 감정 이입등의 감정조절은 불쌍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해 주는 방법으로 지도한다는 이은화 외(198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본 결과를 아버지가 지각한 중요도와 관련지어 보면, “나누기”와 “도와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도하지만, “부정적 감정조절”은 아직 발달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제안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연구문제 1인,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사회화신념의 결과를 보면,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대한 신념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만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도와주기 행동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보다 “도와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아버지가 보다 타인의 힘든 상황에 대해 더 감정이입하여 아동에게도 “도와주기”와 같은 사회적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사성어 중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있듯이 인간은 자신이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타인의 어려운 상황도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버지들은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므로 타인을 돕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고 중요한 행

동인지 알기 때문에 “도와주기”를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아동의 성과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성에 따른 아버지의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어린 아동의 경우는 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신념-지적성취대 인성강조, 성숙 대 환경, 전체 대 개인강조이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윤희, 2000; 안지영, 2000). 따라서 어린 연령의 아동을 둔 아버지들은 세 가지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관한 신념에서는 남아와 여아에 대한 신념이 같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가족의 월 평균소득에 따른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구마다 신념내용에 따른 차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매스컴의 영향으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양육신념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연구문제 1 중에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아버지의 사회화신념 중 사회적 행동을 잘하는 원인과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하는 원인을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아동의 내적인 요인에 그 원인을 두므로써 보다 아동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윤희(2001)와 Kohn(1969)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성인 중심적인 가치관보다 아동중심적인 가치관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사회적 행동을 잘 못하는 원인에 대한 지각은 아동의 성과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아버지의 신념 중 “부정적 감정조절”을 잘 못하는 원인이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는 남아 보다는 여아를 보다 수동적인 존재로 여기므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아버지가 지각하는 이유가 여아, 남아 모두 외적인 요인, 즉 아동의 기질이나 성향이 아닌 주변 환경에 그 이유를 들고 있어서 외부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있어서 양육신념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들(고울희, 2000; 안지영, 2000; McGillicuddy-De Lisi, 1985;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을 지지한다. 이처럼 아동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고 믿는 점에서 볼 때 부모 교육의 중요성 또한 시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의 월 평균 소득에 따른 사회적 행동을 잘 못하는 원인에 대한 신념의 차이를 보면, “도와주기”를 못하는 ‘외적인 요인’에서만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중심적인 신념을 갖고 있으며(고울희, 2000), 아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모델링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을 수동적으로 생각하여 성인 중심적인 강화나 지도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사회화 지도방법에 대한 신념에서 특히 나누기의 경우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여아보다 남아에게 ‘독립심’을 강조하므로써 남아를 보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양육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계몽아동연구소, 1988) 것에 근거해 볼 때, 아버지는 남아를 보다 능동적으로 보아 사회적 행동을 지도할 때, 간접적인 방법인 모

델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아는 보다 소극적으로 보아 사회적 행동을 지도할 때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족의 월 평균소득이나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지도방법에 대한 신념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의 지도방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지각한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와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감정조절”의 중요도와 친사회성만이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아버지가 “부정적 감정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아동은 사회적 능력이 낮으며 친구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음에 예상했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아직 발달상으로 미숙한 아동에게 “부정적 감정조절”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competence), 특히 친사회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인 태도일 때 아동의 주의 집중이나 사회적 미성숙의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한 강차연(1999)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아동의 초기 사회성 패턴이 후기의 사회적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부모는 어린 연령의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조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competence)중 친사회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상과는 다르게 친사회성 외에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아버지의 신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아버지가 내면적으

로 믿고 있는 양육신념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양육행동과 일치하지 않아서 일수도 있고, 둘째, 양육신념은 실제 양육에 있어서 양육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양식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 변인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앞으로의 신념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함께 연구하여 보다 구체적인 경로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유아기 아동을 가진 우리 나라 아버지의 사회화에 대한 주도적 신념은 아동의 성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각 신념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행동의 중요도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은 대체로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양육신념을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버지의 주도적(proactive) 신념에 초점을 두어 연구함

으로써, 후기 신념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학문적 의의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아버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해석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신념 중 사회적 행동에 대한 신념만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신념은 아동의 발달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중요성과 이유를 들어 비일관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의 신념을 각 행동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연구의 제한상 아버지의 양육행동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나 신념과 행동발달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넓은 맥락 안에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관혜(1990). 아버지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역할 특성간의 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차연(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아동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계몽아동연구소(1988). 한국 부모의 아동교육관 및 양육태도 조사연구. (주)계몽사.
- 고울희(2000). 아동의 성,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혜(1993). 아동의 지적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신(1999).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현미(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4), 231-245.
- 안지영(2000). 2-3세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진희(1991).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도에 따른 어머니의 부모교육 인식도 및 아동교육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미경(1990). 아버지의 역할수행정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화심(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전략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위영희(1983). 아버지-아동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아버지 역할 및 아버지-아동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2), 23-31.
- 윤서영(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옥자(1983). 아동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도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아동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화·이경우(1987). 한국 어머니의 유아 사회성 교육.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총서 17.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장가영(1990).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숙(1992).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차은영(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아버지와 아동간의 활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애(1992). 한국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환순(1995). 아버지 아동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01). 한국주요경제지표.
- 허선자(1992). 아버지 역할 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Cheah, C. S. L. (2001, 인쇄중).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Mother's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Behaviors.
- Delucie, M. F. (1987). Fathering from the preschool years through Mid-Adolescence : Variations Associated with child age, Child Sex and Adult life course concern.
- Esterbrooks, M. & Goldberg, A. (1984). Toddler Development in the Family : Impact of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55, 740-752.
- Kohn, M. L. (1963). Social cla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 An interpret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XIV, 571-480.
- Kohn, M. L. (1969). *Class and Conformity : A study in values*. Homewood, IL : The Dorsey Press.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274-30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 & Profilet, S. M. (1996). The Child Behavior Scale : A teacher-report measure of young children's aggressive, withdrawn,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08-1024.
- Lamb, M. E. (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 An integrative overview.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McGillicuddy-De 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Ed.), *Beliefs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7-24).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Gillicuddy-De Lisi, A. V. & Sigel, L. E. (1995).

- Parental belief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pp. 333-358).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Mills, R. S. L., & Rubin, K. H. (1990). Parental beliefs about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Parke, R. D. (1981). *Fathering*.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Rubin, K. H., & Mills, R. S. L. (1988). The many faces of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16-924.
- Rubin, K. H., LeMare, L.,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217-25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K. H., Mills, R. S. L., & Rose-Krasnor, L. (1989). Maternal belief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B. Schneider, G. Attili, J. Nadel-Brulfert, & R. Weissberg (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 perspective* (pp. 313-331). The Netherlands : Klawer.
- Sigel, I. E., Stinson, E. T., & Flaughner, J. (1991). Socialization of representational competence in the family : The distancing paradigm. In L. Okagaki & R. J. Sternberg(Eds.), *Directors of development :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thinking* (pp. 121-144). Hillsdale, N 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now, C. W. (1998). *Infant Development*. NJ : Prentice Hall.